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1호 【루게 제25935호】주제 107 (2018)년 3월 2일 (금요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뜻깊은 식수절이 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 식수절에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고 원아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시면서 봄철나무심기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깊이 심어주시었다.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을 받들어 조국의 산천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 일념을 안고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것은 조국의 민생대계를 위한 애국사업이다.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이다.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여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높이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수 있다. 조국의 재부가 늘어나는데서 숲의 보람을 찾고 미래를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 참된 혁명가라면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전심을 바쳐야 한다.

최근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령도따라 자연과의 전쟁, 산림복구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애국의 뚜렷한 자욱을 새기려는 불같은 열정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산림복구전투 1단계과업이 빛나게 결속된것은 자랑할만 한 성과이다.

이 기간 전국적인 나무모생산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푸른 숲의 영역은 더욱 넓어졌다.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선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과 같은 현대적인 양묘장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각 도들에서 힘있게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수심만정보의 면적에 많은 나무를 심고 각지에서 양묘장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하여 나무모생산능력이 크게 확장됨으로써 산림복구전투를 더욱 힘있게 내밀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심은 나무의 사물들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있으며 전국적인 산림조사정보봉사체계가 확립되고 산림조성사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능률적인 산림기계가 창안제작도 일되었다.

산림복구전투 1단계과업수행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조국을 푸른 숲이 설레이는 사회주의 무풍도원으로 더 잘 꾸러가려는 전체 군대와 인민의 불같은 애국충정인 언어는 빛나는 결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천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10년안에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설레이는 모퉁이,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우리가 당의 의대로 조국의 모든 산들을 모퉁이,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자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산림복구전투는 엄중한 자연속에서 어린 나무모를 키워 심고 해를 이어 가꾸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미룰수 없는 중대한 사업이다. 계절적특성을 고려하여 봄철에 심고 가을에 심고, 건조한 날씨에 물을 충분히 주고,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올해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해이다. 공화국공민이라면 누구나 내 나라, 내 조국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나기 위한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열렬한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봄철나무심기에 적극 떨쳐나섬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상정신적 재산이다. 조국의 불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 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창다른 애국주의인것으로 하여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인민들을 대를 이어가며 참된 애국자로 키워주는 투쟁과 삶의 라침판으로 되고 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 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주의를 심장에 새기고 분발해야 한다. 나무가 없는 산들을 보시며 좋은 수종의 나무들을 많이 심어 화를 부르고 전향시키고 푸른 숲이 설레이는 아름다운 강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당부들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배일을 위한 오늘을 사는 고결한 인생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무한한 헌신성,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애국의 정신이다. 누구나 산림복구전투장이 자신들의 총정성과 애국심을 결집하는 마당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한그루의 나무라도 질적으로 심고 가꾸어야 한다.

올해의 봄철나무심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도, 시, 군들에서는 단위별로 나무심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추고 누구나 다 나무심기에 떨쳐나서야 할 애국적 열의를 보여야 한다.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고향의 산림은 자기 책임이며 한 다는 판을 지니고 산림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새로 심은 나무들이 정상적으로 몰도 주고 물과 잠판목같은것을 배어주면서 판리를 잘하여 사물들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산림부문과 도시경관부문의 일꾼들이 새로 심은 나무들에 늘 관심을 돌리고 어린 나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

지나해 세포군과 리원군, 문덕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 이룩한 성과는 양묘장에서 합격품나무모를 총분리 생산보장하여야 산림복구전투를 당이 정해준 시간표대로 힘있게 내밀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양묘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튼튼히 다지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양묘장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며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자재를 적국 보장하고 성심성의로 도와주어야 한다. 시, 군들에서는 조경사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

산림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우리가 심은 한그루한그루의 나무가 지심같이 뿌리내리고 거목으로 자라 조국의 귀중한 재부로 되게 하자면 산림보호관리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산림보호관리는 대중적사업이 떨쳐나서야 할 애국적 열의인 사업이다.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고향의 산림은 자기 책임이며 한 다는 판을 지니고 산림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새로 심은 나무들이 정상적으로 몰도 주고 물과 잠판목같은것을 배어주면서 판리를 잘하여 사물들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산림부문과 도시경관부문의 일꾼들이 새로 심은 나무들에 늘 관심을 돌리고 어린 나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별감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 산림청해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산림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산림피해를 결정적으로 막아야 한다. 봄철에 여러가지 원인으로 산물이 발생할수 있는 조건에서 철저한 산물막이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우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 시, 군들에서는 산물감시와 통보, 군중통원제 등을 비롯한 산물막이대책을 정연하게 세워놓아 산물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산림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산물이 나면 오배동안 애국 보장하고 성심성의로 도와주어야 한다. 시, 군들에서는 조경사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

산림복구전투는 자연과의 전쟁이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하듯이 올해의 산림복구전투의 승패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뜨거운 항토에 불 지피고 나무심기와 보호관리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사상교양 사업을 풍세적으로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운동과 모범산림군중호생취운동에 힘있게 벌리기 위한 사회적분위기를 계속 고조시켜야 한다. 청년동맹조직을 비롯한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청년년, 소년단원들을 잘 조직하고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기 위한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온 나라가 들끓게 하여야 한다.

오늘의 산림복구전투에서 일꾼들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야 한다.

산림조성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는 지역, 단위들에는 언제나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끓이며 당정책판철에 앞장서고있는 일꾼들이 있다. 들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 시, 군들에서는 일꾼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은 대중의 심금을 울리고있으며 그들을 위문장조로 떠밀어주고 있다.

오늘의 산림복구전투에서 일꾼들의 위치는 언제나 대오의 맨 앞자리이다. 일꾼들은 인민군대지휘관처럼 들끓는 전투현장에 나가 자기가 직접 구멍을 파고 나무도 심어야 한다. 모든 일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 길에 거목은 자매우애 애국의 뿌리가 될 각오를 안고 산림복구전투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산림복구전투지휘부의 역할을 제대로 높여야 한다.

산림의 현 실태와 지대특성, 현실적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단계별계획과 년차별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거침없이 집행해나가야 한다. 모든 단위들에 산림조성계획과 산림담당구역을 정확히 지정해 주고 담당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하며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 대한 총화평가를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산림병해충을 막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

모두다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위대한 김정일시대 황금산의 새 역사를 창조해나가자.

절세위인들의 애국의 뜻 받들어 조국산천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나가자

식수절을 맞으며 근로단체들의 열기모임 진행, 당과 정부의 간부들 나무심기에 참가

【평양 3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온 나라가 봄철나무심기에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국의 모든 산천에 나무를 심는 사업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떨쳐나서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총진군에서 식수절을 맞이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당의

부름따라 황금산, 모퉁이의 력사를 빛내이며 조국산천을 모퉁이시대의 금수강산,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려나갈 애국충정의 열정에 넘쳐있다. 식수절을 맞으며 근로단체들의 열기모임이 1일에 진행되었다. 모임들에는 박광호동지, 김정해동지, 오수용동지, 안중수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근로단체,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꾼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만경대혁명소년군대 앞마당에서 진행된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을 산림복구전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열기모임에서는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박철민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주제 35(1946)년 3월 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퉁이에 오르시어 조국산천을 푸른 숲이 우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끊임없는 전진시찰의 길에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몸소 나무를 심으시며 애국의 뜻을 깊이 새겨주시고 전당, 전군, 전민이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나라의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서는 새로운 전진이 일어났으며 우리 조국은 날을 따라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고있다.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청년동맹일꾼들과 청년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진실히 옹호고수하고 팔없이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스트로브스소나무와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한 경제적리용 가치가 큰 나무들을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적극적으로 심으며 사물들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청년년, 소년단원조성을 위한 좋은일하기운동과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산림복구전투에서 청년전위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식물원 교양마당에서 진행된 산림복구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려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에서는 직용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강철만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식수절을 맞이하는 온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이 조국산천을

푸른 숲이 우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애국헌신의 로고를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한평생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전당, 전군, 전민을 산림복구전투에 부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올해에 사회주의대지를 더 푸르게 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산림복구전투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을 빛나게 실천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회주의강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만경대혁명사적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된 농업근로자동맹과 농공연맹들을 산림복구전투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열기모임에서는 농공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창영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의 무궁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의 무수한 산밭마다에 황금산, 모퉁이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재부를 마련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토건설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애국주의의 푸른 숲과 더불어 날이 깊어지고있다.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농공맹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는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나무심기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봄철나무심기사업에 열심있게 내밀며 산림청과 마을주변에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어 사회주의농촌마을들을 푸른 숲 속에 이 나무심기와 가꾸기를 과학화하여 그 사물들을 높여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식물원 수목원에서 진행된 산림복구전투성공을 더욱 확대하며 사회주의애국운동에 힘있게 벌리기 위한 녀맹일꾼들과 녀맹원들의 열기모임에서는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춘실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식수절을 맞이하는 온 나라 녀성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성이 어려있는 사회주의조국강산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인민의 락원으로 꾸러갈 애국일념으로 끓어번지

라고 말하였다. 자기가 사는 고향마을을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는데 대한 뜻을 받들고 공원과 산림청주변에 더 많은 나무들을 심고 가꾸어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릴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불타는 애국의 마음과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산림복구전투성공을 더욱 확대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들이 끝난 다음 나무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심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과 함께 여러 종의 나무들과 꽃관목들을 정성다해 심었다.



우수한 민족전통을 빛내이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민족유산보호에 관한 사상리념을 지도적지침으로 붙여주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우수한 민족전통에는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 고상한 정신세계와 고유한 생활태도가 반영되어있다.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여있고 대를 이어 전해오는 가치있는 창조물들과 미용품을 귀중히 여기고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정책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높이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족문화와 예술, 민족풍습을 적극 장려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와 뜨거운 인민사랑은 민족명절 정월대보름에도 깃들여있다.

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오늘이 정월대보름이라고 하면서 조신옛을 내놓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 인민들은 설명절과 같은 명절놀이에서뿐 아니라 노동생활, 문화생활, 의식주생활, 도덕생활 등에서 우수하고 훌륭한 민족전통을 창조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선조들이 대를 이어오면서 창조한 민족전통은 우리가 잘 보존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민족유산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비로소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지 모를것이 단순히 정월대보름날이라는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을 존중히 지켜내고 잘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에 맞지 않는것, 이색적인것 특히 부르조아생

활양식이 침습하는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이리시였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고 대를 이어오면서 지켜온 민족전통에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정정과 배의도덕, 조선사람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우리 민족의 고유한 기호와 특성이 반영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민족전통을 가지고있다는 높은 긍지를 간직하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을 더욱 빛내어나가야 한다.

민속을 버리던 민족을 잃어버릴수 있다. ...

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다. 민족이 단순히 한 민족의 세태나 풍속이 아니라 거기에 바로 민족의 슬결과 넉이 깃들여있고 민족의 고유한 풍습과 발자취가 어려있기에 민족, 그것이 없으면 민족도 없다는 우리 장군님의 뜻깊은 교시는 민족전통고수의 고귀한 지침으로 일군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세상을 둘러보면 민족을 경시하고 버린뒤에 민족성이 여지없이 지워지고 사라져 민족적전통이란 말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철세의 애국자인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전통을 대를 이어 찬란히 꽃피우고있는것이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시였던 조신옛, 이 하나의 민족유산에도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있는것인가.

조신옛은 우리 주변나라들에도 명물로 널리 알려져있다고, 지난 시기에 우리 인민들이 옛을 많이 달아먹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1956년에 백두산혁명정적지를 탐사하려 갔을 때 갑자기 만든 검은옛을 먹어본적이 있는 일군들에게 옛날부터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민족애와 감회깊은 추억도 실려

있는 조신옛이다.

연제인가는 한 감자가공공장의 옛생산직장이 틀리시여 쏟아져나오는 감자옛을 보시며 옛은 어쩔뿐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옛을 갖가지 크기로 포장할데 대하여 차근차근 일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흰옛을 즐겨 먹었는데 설명절에는 옛날풍속대로 흰옛을 만들어먹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며 조신옛은 가지수도 여러가지가 되고, 수수나 장이버도 만든것도 있고 흰옛이나 참쌀로 만든것도 있고 감자나 고구마로 만든것도 있고 옛에 깨나 콩, 잣을 묻혀먹는것도 있다고 가르쳐 주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장군님께서 조신옛에 대한 이야기를 구수하게 떠나가신 그날은 일군들이 민족유산에 대한 또 한차례의 귀중한 강의를 받은 날이기도 하였다.

민족유산을 귀중히 여기시며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온정적인 조치는 하여 조신옛은 신문과 잡지, 과학영화 등을 통하여 널리 소개되게 되었으며 식료품장에서는 인민들의 구미에 맞는 것까지 옛들이 생산되게 되었다.

설명절에도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간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가 깃들여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시기부터 음력설을 쇠는것이 전통적인 풍습으로 되어왔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는 음력설을 국가적인 명절로 크게 쇠었다. 고구려사람들은 해마다 음력 정초가 되면 강가에 모여 원을 갈라 민족놀이를 하곤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같은 민족전통을 넘두어 두시고 어느때에도 일군들에게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의 음력설을 쇠는것을 전통으로 하도록

말씀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음력설을 쇠지 않으면 앞으로 후대들이 음력이 어떤것인지 알지 못하게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해 음력설을 명절로 크게 쇠데 대하여 이리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오랜 옛날부터 음력을 리용하여왔으며 명절들도 음력에 맞추어 쇠었다고, 우리 인민의 전통으로 보나 설명절을 쇠어는 역사를 놓고보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진짜설명절은 양력설이 아니라 음력설이라는것을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조신옛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는 문제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함께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어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설명절이 우리 인민의 민족명절로 더욱 빛나게 되었다.

철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민족적풍습들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아름답게 꽃피어나고있다.

나라와 민족마다 역사와 전통이 있고 풍습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절로 이어지고 계승되는것이 결코 아니다.

민족성을 고수하지 못한다면 자기 민족의 역사와 전통이 여지없이 말살되어 가는 나라들과 민족들이 남긴 교훈은 실로 심각한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함께 민족성이 철저히 고수되여는 우리 조국의 역사는 철세의 애국자를 명도자로 모셔야 민족의 존엄도, 역사와 전통도 수호되고 빛나는 진리를 실증해주시고있다.

사상도 명도도 풍도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인 경애하는 현수님을 높이 모시어 내 나라, 내 조국은 민족의 넋이 살아 고동치고 민족의 향취가 넘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깊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김 인 선

인민이 주인이다

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도에 건설된 치과병원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찾아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이날 병원을 돌아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요란한 병원은 아직 평양에도 없다고 하시면서 로동계급이 많이 일하며 생활하고있는 이곳에 이런 현대적인 병원을 건설할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를 안내하던 도의 한 일군이 최신형종합치과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면서 이 설비는 다른 나라에서 대량으로 사들이 써야지 누가 쓰겠는가고 드물고 교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설비를 조신에서는 어떻게 지방도시의 병원설비로 옮겨가는가고 총서 문물을 물지 못했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창들만 쓴다, 그러면 야단났구만, 우리 나라에는 창이 없는데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장내에는 웃음이 퍼져올랐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그러나 걱정것은 없다고, 우리 나라에서야 인민이 주인인데 인민들이 써야지 누가 쓰겠는가고 드물고 교시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마음은 저도 모르게 송입해졌다. 웃음속에 반가움에는 너무나 뜻깊은 가르치심이기때문이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을 떠나시기에 앞서 일군들에게 병원을 크게 짓고 현대적으로 설비를 갖추어 놓았다고 선전만 하여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실제로 이 병원에서 턱을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여 사야 차에 오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라신 차는 점점 멀어져갔다.

하지만 일군들의 가슴에는 우리 나라에는 인민이 주인이라고, 최신형종합치과를 인민이 써야지 누가 쓰겠는가고 하시던 그이의 말씀이 울려다졌다.

인민이 주인이다



푸른 숲에 어려있는 철세위인들의 숭고한 조국애를 가슴깊이 새겨간다. -4월 15일소년백화원에서- 김 광 립 작음

사회의 강국건설에서 우리 당이 믿는것은 인민대중의 사상적 힘, 정신력이다.

대중의 정신력발달에서 일군들의 진정한 커다란 작용을 한다. 한것은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문 열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정을 주어 정을 얻고 덕을 퍼서 덕을 얻으라는 말도 나왔을것이다.

남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여길뿐 아니라 남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바칠수 있는 사람들이 애제사만 우리나오는 고상한 감성인 진정.

진정이야말로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지는 대중발동의 위력한 무기이다.

보살피려는 인민들의 친혈육이 필것을 바라시는 숭고한 의도가 깃들여있다.

경애하는 현수님의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당의 참된 동지가 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일군들에게서 발원되는 진정.

일군들에게 있어서 수준과 방법론도 중요하다. 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정과 열을 부어주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 마음의 열이 바로 진정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있기때문이었다.

참으로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맞이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아들을 씻어주고 일으켜 내세워주는 위대한 어머니의 다함없는 정이 자아낼수 있는 기쁨이고 행복이었다.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일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진정을 바쳐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속속들이 풀어주기 위해 애쓰는 어머니다운 사람들이 매만이 바칠수 있는 진정이다.

올해 이끌어주고 생을 빛내어주는 사랑보다 참다운 진정은 없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식의 고통한 상상을 평생소원으로 여기며 한치의 드림이 있을새라 용의주도하게, 지성을 다하여 꾸준히 자식을 키워나가는 어머니.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인제인가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하늘의 별이라도 파는것 진정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에 힘써나간다고 세워주는 어머니당의 온정속에 경쟁의 삶은 받아안은 한 전사가 뼈를 깎아서라도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할 피더운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며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일하고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조국강산을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후대들이 덕을 보게 하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자기 대에는 비록 덕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 덕을 볼수 있게 가장 훌륭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이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었으며 늘 하시는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5월에 있는 일이다. 산과 들에 푸릇푸릇 싹이 돋아나는 계절이었다. 화창한 봄날의 푸른 산들과 푸르른 숲은 쉬어가고 손이 부는듯 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산, 그 숲들을 그냥 지나시며 잠시도 휴식없이 현지지도의 먼 길을 이어가시였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르신 곳은 강원도 고산군 설봉산사승이었다. 이곳에는 명승적 석왕사가 있었다.

석왕사로 말하면 우리 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전통을 자랑하는 귀중한 유적의 하나일뿐 아니라 이 지역의 효험이 높은 약수와 수려한 풍치로 하여 예로부터 손꼽히는 명승지이다.

봄이 한창 무르녹는 석왕사를 하늘을 매무어 막 돌출한 상향한 나무들과 울긋불긋한 꽃들, 아우성대도 우렁찬 개울물소리와 세사의 지저귐소리로 하여 수려함의 극치를 려고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풍기가 아주 좋고 숲이 무성하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을 몸가까이

이런 산림이 나라의 재부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줄 만한것입니다. 이런 느리나무를 도처에 조성하면 풍치도 더 멋있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리익이 클것입니다.

아름드리 느리나무가 가볍게 부는 바람에 가지를 설레설레 흔들고있었다.

나무줄기가 얼마나 싹하고 가지가 넓게 퍼졌는지 그 그림자에 한계 대대리 쉽게 고여 앉을수 있을것 같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무가 몇백년 싹이 자랐다고 하시면서 무성한 일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약수와 함께 느리나무가 많은것이 또한 석왕사의 특징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석왕사에 와보니 정말 느리나무가 많다고, 느리나무라고 부를만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느리나무는 보통 30m쯤 자라 나무모양이 보기 좋을까 아니라 나무의 결과 빛깔이 매우 굵고 굳기까지 옛날부터 좋은 가구용재로 건축용재로 려용되어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판상용으로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고집도 완만하고 등산도 하면서 즐겁게 휴식할수 있게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석왕사물짜기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양어장도 건설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지난날 봉천동지배

이런 산림이 나라의 재부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줄 만한것입니다. 이런 느리나무를 도처에 조성하면 풍치도 더 멋있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리익이 클것입니다.

아름드리 느리나무가 가볍게 부는 바람에 가지를 설레설레 흔들고있었다.

나무줄기가 얼마나 싹하고 가지가 넓게 퍼졌는지 그 그림자에 한계 대대리 쉽게 고여 앉을수 있을것 같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무가 몇백년 싹이 자랐다고 하시면서 무성한 일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약수와 함께 느리나무가 많은것이 또한 석왕사의 특징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석왕사에 와보니 정말 느리나무가 많다고, 느리나무라고 부를만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느리나무는 보통 30m쯤 자라 나무모양이 보기 좋을까 아니라 나무의 결과 빛깔이 매우 굵고 굳기까지 옛날부터 좋은 가구용재로 건축용재로 려용되어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판상용으로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고집도 완만하고 등산도 하면서 즐겁게 휴식할수 있게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석왕사물짜기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양어장도 건설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지난날 봉천동지배

이런 산림이 나라의 재부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줄 만한것입니다. 이런 느리나무를 도처에 조성하면 풍치도 더 멋있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리익이 클것입니다.

아름드리 느리나무가 가볍게 부는 바람에 가지를 설레설레 흔들고있었다.

나무줄기가 얼마나 싹하고 가지가 넓게 퍼졌는지 그 그림자에 한계 대대리 쉽게 고여 앉을수 있을것 같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무가 몇백년 싹이 자랐다고 하시면서 무성한 일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약수와 함께 느리나무가 많은것이 또한 석왕사의 특징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석왕사에 와보니 정말 느리나무가 많다고, 느리나무라고 부를만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느리나무는 보통 30m쯤 자라 나무모양이 보기 좋을까 아니라 나무의 결과 빛깔이 매우 굵고 굳기까지 옛날부터 좋은 가구용재로 건축용재로 려용되어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판상용으로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고집도 완만하고 등산도 하면서 즐겁게 휴식할수 있게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석왕사물짜기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양어장도 건설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지난날 봉천동지배

은 이 경치좋은 곳에 절간같은 것을 지어놓고 인민들을 억압하려했지만 혁명가들이 우리는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금수산림이라는 말이 있는데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꽃피우시어 우리 조국강산은 말그대로 금수산림이 되었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더욱 풍만하게 가꾸어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 땅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며 품어주시어 가꾸어가는 위대한 장군님들, 조국의 백년대를 설계하고 후손민들의 행복을 꽃피워나가는 그이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듯 숲은 좌와 소리를 내며 끝없이 울려퍼졌다.

백차오르는 흥분을 누르며 일군들은 속으로 이렇게 느꼈다.

100년후! 그때는 우리 후대들의 세기이다. 그 세기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철땀의 한 속속에서 한그루의 나무를 매단지시며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과 후대들의 행복을 담아서 설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려켜보이

리었던 대강산이 수림으로 덮이고 온갖 새가 날아드는 수려한 산으로, 인민의 유원지로 변천되었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또다시 나무수종을 다양하게 확대해 내는 높은 뜻을 품고 계신것입니다.

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사업도들 하시다가 화재를 나무수종문제로 둘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대강산에 가보았는데 나무수종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길거리를 지나갈때면 가로수들을 늘어보시고 산기슭을 지나갈때 산림상태에 깊은 관심을 두시어는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포괄할수 있는 문제였다.

돌이켜보면 수도의 여러 거리들의 가로수도 그이에게 하여 수종이 바뀌어졌고 수상나무, 살구나무, 은행나무 등 갖가지 나무들도 거리의 풍치를 더욱 돋구게 되었다.

인민의 유원지로 꽃피던 대강산이 오늘과 같이 무성한 숲으로 덮이게 된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식수사업을 적극 내밀어주시였기때문이다.

전정시기에 육성하게 불러

우리 시대에 실인 나무

속천청년과 로작학습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이룩할것에 해설하는 일군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생활에서 좀 부족함이 있어도 진정으로 인민들을 위해주고 고락을 함께 하면 그들을 불러일으킨다면 모든 일이 잘될것입니다. 일군들은 그런 식으로 인민들속에서 들어가 모든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협조하며 아픈 사람,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다같이 행복하게 살고 애개결로 전진하는 참다운 일군.

바로 그러한 사회주의도덕,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기풍은 사회에 지배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우리 현수님의 가르치심에는 일군들이 진정으로 인민들을 위해주고

자기 어머니를 제일 믿고 따르는것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기때문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도 우리 일군들은 어머니를 마음으로, 어머니의 손길로 인민들을 보살피는 인민의 참된 복부자, 총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인제인가 경애하는 현수님께서는 하늘의 별이라도 파는것 진정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에 힘써나간다고 세워주는 어머니당의 온정속에 경쟁의 삶은 받아안은 한 전사가 뼈를 깎아서라도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할 피더운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며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일하고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이런 산림이 나라의 재부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줄 만한것입니다. 이런 느리나무를 도처에 조성하면 풍치도 더 멋있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리익이 클것입니다.

아름드리 느리나무가 가볍게 부는 바람에 가지를 설레설레 흔들고있었다.

나무줄기가 얼마나 싹하고 가지가 넓게 퍼졌는지 그 그림자에 한계 대대리 쉽게 고여 앉을수 있을것 같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무가 몇백년 싹이 자랐다고 하시면서 무성한 일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약수와 함께 느리나무가 많은것이 또한 석왕사의 특징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석왕사에 와보니 정말 느리나무가 많다고, 느리나무라고 부를만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느리나무는 보통 30m쯤 자라 나무모양이 보기 좋을까 아니라 나무의 결과 빛깔이 매우 굵고 굳기까지 옛날부터 좋은 가구용재로 건축용재로 려용되어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판상용으로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고집도 완만하고 등산도 하면서 즐겁게 휴식할수 있게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석왕사물짜기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양어장도 건설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지난날 봉천동지배

이런 산림이 나라의 재부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줄 만한것입니다. 이런 느리나무를 도처에 조성하면 풍치도 더 멋있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리익이 클것입니다.

아름드리 느리나무가 가볍게 부는 바람에 가지를 설레설레 흔들고있었다.

나무줄기가 얼마나 싹하고 가지가 넓게 퍼졌는지 그 그림자에 한계 대대리 쉽게 고여 앉을수 있을것 같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무가 몇백년 싹이 자랐다고 하시면서 무성한 일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약수와 함께 느리나무가 많은것이 또한 석왕사의 특징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석왕사에 와보니 정말 느리나무가 많다고, 느리나무라고 부를만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느리나무는 보통 30m쯤 자라 나무모양이 보기 좋을까 아니라 나무의 결과 빛깔이 매우 굵고 굳기까지 옛날부터 좋은 가구용재로 건축용재로 려용되어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판상용으로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고집도 완만하고 등산도 하면서 즐겁게 휴식할수 있게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석왕사물짜기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양어장도 건설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지난날 봉천동지배

이런 산림이 나라의 재부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줄 만한것입니다. 이런 느리나무를 도처에 조성하면 풍치도 더 멋있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리익이 클것입니다.

아름드리 느리나무가 가볍게 부는 바람에 가지를 설레설레 흔들고있었다.

나무줄기가 얼마나 싹하고 가지가 넓게 퍼졌는지 그 그림자에 한계 대대리 쉽게 고여 앉을수 있을것 같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무가 몇백년 싹이 자랐다고 하시면서 무성한 일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약수와 함께 느리나무가 많은것이 또한 석왕사의 특징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석왕사에 와보니 정말 느리나무가 많다고, 느리나무라고 부를만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느리나무는 보통 30m쯤 자라 나무모양이 보기 좋을까 아니라 나무의 결과 빛깔이 매우 굵고 굳기까지 옛날부터 좋은 가구용재로 건축용재로 려용되어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판상용으로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고집도 완만하고 등산도 하면서 즐겁게 휴식할수 있게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석왕사물짜기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양어장도 건설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지난날 봉천동지배

이런 산림이 나라의 재부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줄 만한것입니다. 이런 느리나무를 도처에 조성하면 풍치도 더 멋있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리익이 클것입니다.

아름드리 느리나무가 가볍게 부는 바람에 가지를 설레설레 흔들고있었다.

나무줄기가 얼마나 싹하고 가지가 넓게 퍼졌는지 그 그림자에 한계 대대리 쉽게 고여 앉을수 있을것 같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무가 몇백년 싹이 자랐다고 하시면서 무성한 일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약수와 함께 느리나무가 많은것이 또한 석왕사의 특징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석왕사에 와보니 정말 느리나무가 많다고, 느리나무라고 부를만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느리나무는 보통 30m쯤 자라 나무모양이 보기 좋을까 아니라 나무의 결과 빛깔이 매우 굵고 굳기까지 옛날부터 좋은 가구용재로 건축용재로 려용되어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판상용으로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고집도 완만하고 등산도 하면서 즐겁게 휴식할수 있게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석왕사물짜기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양어장도 건설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지난날 봉천동지배

본사기자 김 준 혁

전국의 모든 산들에 나무를 심는 사업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떨쳐나서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습니다. 김정은

【평양 3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당의 위대한 국토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강건 70돐이 되는 올해에 산림복구전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갈 천만군민의 비상한 애국열의가 세계에 분출되고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켜 주신 뜻깊은 날인 식수절을 맞으며 1일 전국각지에서 쟁기모임들을 가지고 일제히 봄철나무

식수절을 맞으며 온 나라가 나무심기에 떨쳐나섰다

심기에 들어갔다.

쟁기모임장소들은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에 부름을 받으며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애국의 호소따라 황금산, 보물산의 새 역사를 펼쳐 가려는 참가자들의 뜨거운 혁명적열정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자신들이 지닌 숭고한 공민적의무와 본분을 자각하고 각자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깨끗한 땅과 원시의 구슬땀을 바쳐 이날에만도 175만여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온 나라가 나무심기에 떨쳐나섰다

을 가지고 양묘장들을 잘 꾸리며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며 벌려 수확이 좋은 나무와 꽃관목들을 대대적으로 키워 내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두가 조국의 푸른 숲에 어엿히는 절세위인들의 높이신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국도건설의 빛나는 전성기, 황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기 위한 산림복구전투에서 빛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나라, 내 조국을 사회주의혁명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함경북도, 함경남도, 량강도에서

강원도의 양묘장들을 더 잘 꾸리고 나무모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이며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여 빨리 자라고 경제적리용 가치가 큰 나무들을 대대적으로 심었다.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도안의 산과 들에 푸른 숲 우거지게 하며 산들에 대한 감독통제와 산불막이, 병충해방지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는 동시에 땀감문제를 해결하여 산림자원을 적극 보호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함경북도, 함경남도, 량강도 근로자들의 쟁기모임에서 보고자들과 근로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에 산림복구전투성과를 더욱 확대하면서 이미 조성된 산림보호사업에 애국의 한마음을 바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량강도의 모든 단위들에서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산림조성 및 보호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산림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조국산천을 푸른 숲 우거진 사회주의성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나갈 불타는 열의는 남포시와 라선에서 진행될 쟁기모임에서도 표명되었다.

모임들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오늘의 산림복구전투에서 일심단결의 위력과 자력자강의 정신,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 일념으로 갖나주, 창성이갈나무, 세일소나무, 아카시아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정성껏 심었다.

평양시에서

철도성과 평양시안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철도성혁명사적관, 문수봉혁명사적지 등에서 쟁기모임들을 가지였다.

보고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72년전인 주제 35(1946)년 3월 2일 모란봉에 오셔서 조국방어를 푸른 숲 우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켜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에서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근로자들의 쟁기모임에서 보고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나라를 수렴화, 원림화할데 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해 실행을 다 바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대한 국토관리사상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강산을 만복의 미천으로, 청춘락원지로 빛내시길 바라는 의지를 지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에서

시고 온 나라에 나무심기운동의 불꽃을 지켜주시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평안남도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봄철나무심기기간에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에 깃들여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산림조성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쟁기모임과 도로주변들에 더 많은 나무와 꽃관목들을 심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스트로브스소나무, 창성이갈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

황해북도, 자강도, 강원도에서

황해북도, 자강도, 강원도 근로자들의 쟁기모임에서 보고자들과 근로자들은 3월 2일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애국헌신의 로고와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혁사의 날이라고 하면서 산림조성사업은 조국의 부강발달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보람찬 투쟁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사회주의애국열의운동과 모범산림군호정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특히 근로단체조직에서 청년림, 소년단체를 적극 조성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일군들이 산림복구전투를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며 과학기술학습과 경험토론회, 보여주기를 널리 조직하여 심은 나무들에 대한 사물들을 눈앞에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산이 많은 자강도에 서는 산을 잘 이용하여야 할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모든 산들에 경제림과 보호림, 풍지림들을 합리적으로 조성하는것과 함께 혼성림 조성방법과 립동복합경영방법을 널리 받아들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혁명의 수도를 더욱 풍치수려하게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에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봄철나무심기가 시작되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뜨거운 애국의 마음안고 떨쳐나

만경대학생소년궁전으로 달려나간 시안의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학생들은 애국총정의 열기로 가슴을 끓이며 나무심기에 시기를 올렸다. 그들은 청년들이 불꽃이 온 나라가 들끓고 청년들의 발걸음이 빨라야 부강할 미래가 앞당겨진다고 하신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온 나라를 수렴화, 원림화하기

가르쳐주신대로 산림복구전투성과를 더욱 확대하면서 이미 조성된 산천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해나갈 일념안고 떨쳐나선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애국적열정에 넘쳐 수도의 곳곳에서 많은 나무를 심었다.

위대한 사업에 용감 떨쳐나섰다. 청년동맹일군들은 오늘의 나무심기는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실천적모범으로 동맹원들을 힘있게 불려나오기였다. 이들은 좋은 수종의 나무를 더 많이 심기 위해 노력조치를 면밀하게 한데 기초하여 작업공구는 물론 나무를 질적으로 심을수 있는 버팀대와 새끼줄도 충분히 준비

않도록 버팀대를 든든하게 세워 주어 높은 사물들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수도의 해당 지역으로 달려나간 인민의 직맹원들도 숭고한 공민적의무를 안고 나무심기전투에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직맹원들은 이 땅에 제손으로 재운 나무 심지 않고서는 나무와 애국에 대하여 멋있게

한그루의 나무를

시안의 녀맹원들이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가며 한그루의 나무를 질적으로 심었다.

나무심기를 앞두고 녀맹원들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과의의 녀맹원들에게 다시금 새겨주기 위한 정치사상을 철저히 심었다. 이와 함께 녀맹원들에게 나무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들이 맡겨진 작업과제수행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녀맹원들은 나무심기에서 중요한것은 멋대를 심었는가 하는 데 있는것이 아니라 멋대를 심었는데 있는가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품어 키우기 정미 때 나무모를 땅심에 충화할 발을 수 있게 심어나갔다. 그들은 간격을 정확히 보장하면서 과농은 구멍이들어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두둑히 깔아주고 나무를 심는 다음에는 주변정리도 알뜰하게 하였다.

수도의 농업근로자들도 나무를 많이 심는데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좋은 수종의 나무를 한그루라도 더

고향산천을 푸르게 할 일념으로

식수절을 맞으며 황해북도안의 산림복구전투정열에 애국의 기상이 새차게 나뉘고있었다.

공화국강건 일꾼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산림복구전투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 불꽃같은 각오로 애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품들이 커온 나무모들을 정리 떠나고 해당 지역의 산들에 오를 이들은 고향산천을 더욱 푸르게 할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한그루, 한그루를 높은 사물들을 보장할수 있게 정성껏 심었다. 그러하여 산림조성성열을 더 높일수 있게 하였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만들어 조국은 결실하면 반드시 한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도의 일군들은 올해의 봄철나무심기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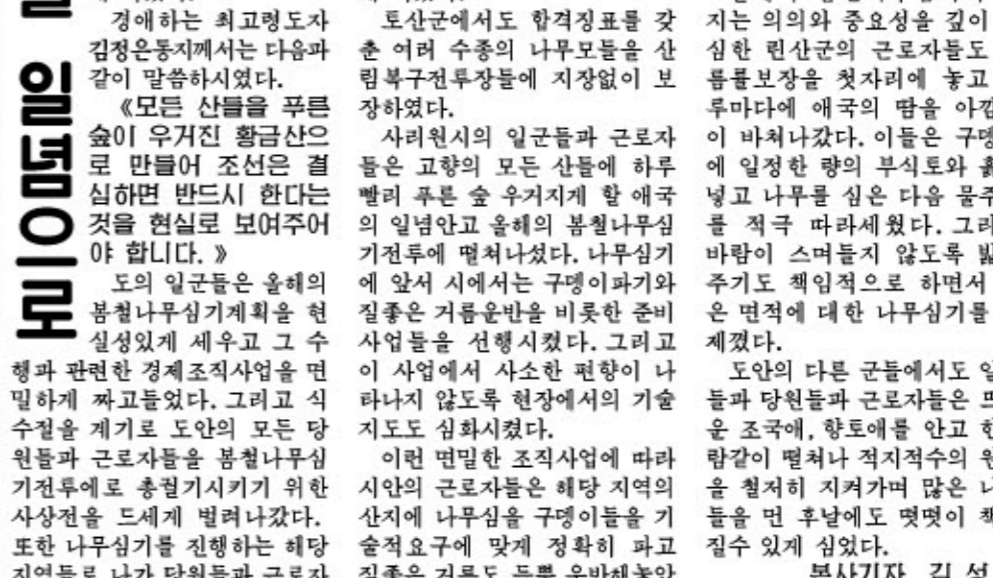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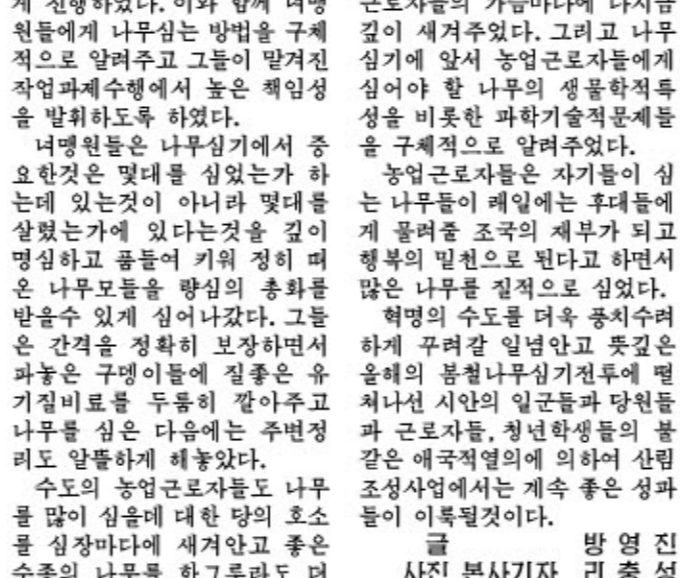
들이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실천적모범을 보였었다.

온 도가 나무심기전투로 부글부글 끓었다. 혁신의 새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다.

신개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무모보장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울것을 올해 나무심기전투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걸었다.

군일군들은 올해 봄철에 심은 나무모들을 수종별로 충분히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온의 산림조성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안고 모예양묘장은 물론 각 단위 일꾼들의 나무모양성정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사소한 부족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수종성도 높였다. 그러하여 하나같이 싹하게 키운 나무모들이 해당 지역의 산들에 나갈수 있게 하였다.

토산군에서도 함경정표를 갖 온 여러 수종의 나무모들을 산림복구전투장들에 지장없이 보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바쳐

리 원 군 에서

뜻깊은 올해 식수절을 맞으며 리원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조국의 산들을 더욱 푸르게 할 데 높은 열의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많은 나무를 심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사업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자연개조사업입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광범한 대중을 나무심기전투에 불려일으키는 조직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왔다.

산림부문의 일군들은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울창한 산림을 조성해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높이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수 있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올해 나무심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미리부터 그 준비에 힘을 넣었다.

산림경영소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과에 모신것을 자랑과 긍지를 안고 올해에도 산림복구전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나무심기단체별목표를 정확히 세웠다.

이와 함께 모예양묘장에서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 일군들이 앞장 섰다.

그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호전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가는 기수가 되어 이신작의 모범을 보이면서 애국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나무를 심었다.

군청동농장경영위원회와 군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나무심기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다. 특히 그들은 미리부터 나무심기준비를 착실히 하고 작업조직을 빈틈없이 하였다.

군안의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도 조국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 애국심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많은 나무를 심었다.

식수절을 맞으며 나무심기에 떨쳐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이날 읍지구의 산들에 갖나주 수백그루와 많은 수유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다.

창성하는 올해 봄철에 갖나주, 창성이갈나무와 수유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들을 많이 심을 높은 목표를 세우고 나무심기전투를 계속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김경철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더 많이 질적으로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입니다.》

본격적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내 나라, 내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어는 당의 위대한 구상을 받들고 식수절을 계기로 많은 나무를 심었다.

군에서는 쟁기모임을 의의있게 조직하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그루의 나무를 심어도 기술요구의 요구대로 심도록 하는 데 모를 바랐다. 이와 함께 나무

심는 방법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여 매 단위의 일군들이 나무의 사물들을 최대한 높일수 있게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특히 군산림경영소에서 싹하게 키운 나무모들을 원림화 보장하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따라세웠다. 이 단위의 일군들과 농업원들은 일러를 산림복구전투의 병기창으로 일신시키고 군에 필요한 나무모를 원만히 대주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군에서는 해마다 나무심기를 한다고 하여 만성적으로 대할것

이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호전이라는 확고한 관점에서 이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군의 혁명일군들은 대중의 앞장에서 나무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이신작적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나무심기에 떨쳐나선 대중에게 뜨거운 애국심을 심어주는 계기로 되었다.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 조국산천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울

은 정성을 기울였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날 불타는 애국의 마음안고 많은 면적에 나무를 심었다.

군에서는 이를 계기로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내밀어 보다 큰 성과를 안아주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있다.

군산림경영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단위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어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또한 저수지로부터 모예양묘장까지 자연관수계를 확립할 목표를 세우고 적극 추진하고있다.

특파기자 오철환

불타는 열의가 차뵈었다. 이들은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모들을 자기의 살처럼 여기며 뿌리가 상하지 않게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농업원들은 푸른 숲이 우거진 조국의 레일을 그려보며 모운반에 품을 들이면서 뿌리뿌리를 진흙으로 감싸고 부식토를 충분히 넣은 구멍이들어 나무모를 정성껏 심었다. 이들은 조국, 향토에 애국의 마음을 끓이며 나무를 몇대 살려냈는가 하는 물음에 멋있게 대답할수 있게 뜨거

세계적 수준의 무궤도전차생산기지로 전변시킬 불같은 열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돌아보고

크나큰 믿음 안고 더 높은 령마루에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이 천지개벽되었다.

생산건물과 과학기술보급실, 문화후생시설들을 비롯한 10여개의 건물들이 한복의 그림처럼 황홀한 조화를 이루었다. 구내는 수중이 좋은 나무와 꽃관목들로 더욱 이채를 띠고 있다.

생산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과학화수준 또한 높은 경지에 올라섰다. 첨단기술이 도입된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되고 튼튼기재와 전동기생산에 필요한 각

종 설비들과 로력,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제작설치되어 생산성이 더욱 높아졌다. 여러 생산공정들의 원격조종화, 자동화가 실현되면서 자랑할만한 성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이에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었고 며칠 후 늦은 밤에는 목소 새형의 무궤도전차시운전운영계획에 오르

시어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것이어서 제 집안에 들어앉은것처럼 마음이 편하고 증지스럽고 대단하게 여겨진다는 크나큰 영광과 믿음을 안겨주셨다.

그 믿음과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공정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비하여 억센 나뭇잎을 달아주고 황조의 불씨가 되어 거대한 기적의 불길을 지펴 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하여 진정히 어머니 마음으로 여기고 자기들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잇따라하고있으며 당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충성을 바쳐가고있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개건공사에 달라붙은것은 몇해전이었다. 임리를 자기 힘으로 일신시키기 위해 펼쳐나선 그들의 분발심은 대단했다.

사실 현행생산과 개건공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모두가 철세위인정의 평도입적이지 않았던 자기가 단위를 훌륭히 꾸릴 일임안고 생산현장과 건설현장에서 땀과 밤이 따로 없는 헌신적인 투쟁을 벌여왔다.

당의 믿음은 곧 명줄이고 삶의 전무기에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난관앞에 추호도 동요하지 않았다. 누구도 명명한 대화전투는 없었다. 모두가 하루가 멀다하고 화하였고 공사실적은 눈에 띄게 올라갔다.

총공과 헌신의 분초초과 호르고 공장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훌륭하게 건설하자, 가장 멋있게!

조종특성이 좋은 새로운 전동기제작투가 벌어진 전동기제작에서는 또 어떤 위훈이 창조되었던가.

새형의 무궤도전차에 설치할 전동기를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열의와 안고 직장의 기능공들은 해당 부문의 과학자, 연구사들의 방조밑에 구조가 간단하고 생산원가와 전력소비가 적은 새로운 전동기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제작하기 위한 철야전투를 벌여왔다. 종업원들은 부속 하나를 만들고 조립해도 뜨거운 지성을 바치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만든 전동기의 성능이 동국형시험과 전동기종합시험에서 《합격》으로 통과되는 환산간단순간은 곧 당이 준 크나큰 믿음에 보답해가는 한걸음일뿐이었다.

명렬한 생산열정의 나날 공장종업원들과 여러 단위의 과학자, 연구사들은 《세계와 경쟁하라, 세계에 도전하라, 세계를 앞서나가라!》의 야심만만한 배양을 지니고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차를구멍가공공정반과 건인속도시험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대적인 설비들을 제작설치하고 많은 기술혁신안들을 도



수도적응수준과 평양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시당위원회 지도밑에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훌륭히 개건현대화하기 위한 결사투쟁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공사량은 방대했다. 그러나 건설에 동원된 전원들속에서는 어떤 험악이 지겨워왔는가. 당은 우리를 믿고 영예로운 파업을 맡겨주었다. 그 믿음에 높은 실천적성과로 보답하자. 한복으로 울리는 불같은 열의는 실천투쟁과정에서 그대로 실증되었다.

10여개의 새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쏙쏙 솟아올랐다. 이렇고 저렇고 다르게 공사가 힘있게 진행될수록 애로와 난관

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당의 믿음을 심장에 새겨안고 떨쳐나선 대들의 힘은 무한했다. 모든 건물들을 땅이 바라는 높이에서 훌륭하게 건설하자, 가장 멋있게!

철야전투가 벌어지는 개건현 대화전투는 그대로 결사투쟁의 도가니로 화하였고 공사실적은 눈에 띄게 올라갔다.

총공과 헌신의 분초초과 호르고 공장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훌륭하게 건설하자, 가장 멋있게!

조종특성이 좋은 새로운 전동기제작투가 벌어진 전동기제작에서는 또 어떤 위훈이 창조되었던가.

새형의 무궤도전차에 설치할 전동기를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열의와 안고 직장의 기능공들은 해당 부문의 과학자, 연구사들의 방조밑에 구조가 간단하고 생산원가와 전력소비가 적은 새로운 전동기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제작하기 위한 철야전투를 벌여왔다. 종업원들은 부속 하나를 만들고 조립해도 뜨거운 지성을 바치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만든 전동기의 성능이 동국형시험과 전동기종합시험에서 《합격》으로 통과되는 환산간단순간은 곧 당이 준 크나큰 믿음에 보답해가는 한걸음일뿐이었다.

명렬한 생산열정의 나날 공장종업원들과 여러 단위의 과학자, 연구사들은 《세계와 경쟁하라, 세계에 도전하라, 세계를 앞서나가라!》의 야심만만한 배양을 지니고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차를구멍가공공정반과 건인속도시험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대적인 설비들을 제작설치하고 많은 기술혁신안들을 도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개건공사에 달라붙은것은 몇해전이었다.

누구나 과학기술의 주인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은 사회에 과학기술혁신킴을 세워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되게 함으로써 지식과 기술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대화의 성과가 온을 내는가 못 내는가 하는것은 생산의 담당자인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에 크게 달려있다.

공장에서 이러한 현실적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육성사업도 방법론있게 진행되고있다.

이 공장의 과학기술보급실을 놓고보자. 국가방위철학과 공장국방방위철학으로 되어있는 과학기술보급실에서는 국가방위철학이나 원격교육대학의뿐 아니라 자체의 과학기술보급체계를 영사업도 진행하고있다.

특히 잘하고있는것은 무궤도전차생산에 필요한 방대한 량의 기술자료들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기술자료기지를 구축해놓고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자기 직종에 맞는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있는것이다.

공장에서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능력이 맞게 과학기술학습과제를 명백히 주고 그에

대한 총화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학습에 시 모범적인 종업원들에 대한 평가사업도 적극 따라세우고있다.

이렇게 되니 과학기술보급실이 늘 총성거리고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은 공장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이 차넘치는 속에 120여명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원격교육대학에 한한시에 입학하고 있다. 공장에 뒤물어지는 과학기술중시의 열풍은 보다 훌륭해질 때일을 시사해주고있다.

《자력갱생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이며 최첨단물자의 정신입니다.》

《우 리 힘 이 현대적으로 전환된 공정의 생산공정들마다에는 공물점이 있다. 대부분의 설비들이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창조물들이라것이다. 물건기재와 전동기생산에 필요한 38종에 800여대의 설비들모두가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치켜든 이곳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헤엄 단위와 힘

당의 현명한 평도의 손길아래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의 안팎이 산업시설이 나뉘며 이루어진 전민적인 생산공정의 현대화, 자동화, 호프신화가 실현되어 나라는 려계운수발전을 힘있게 추동할 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되었다.

《재 기 이 다 을 합쳐 우리 식으로 제작한것이다. 특히 무궤도전차의 견인 및 속도시험대를 검사하는 견인-속도시험대, 전공가압합성설비, 차체열박성형기, 차를구멍가공공정심판을 비롯한 7종의 설비들은 기술특성성이 우월하여 내놓고 자랑할만한 설비들이다. 이렇게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무궤도전차를 마음먹은대로 생산할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흥겹게 하는것은 여러대의 오랜 설비들도 CNC화하여 가공능력과 정밀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려주었다는 사실이다.

조종특성이 좋은 전동기를 새롭게 설계제작하여 무궤도전차의 견

인력을 1.2배로 높이고 자동차 단위를 비롯한 각종 부속품들을 자체로 만들어 생산에 도입한것도 주목되는 성과라고 말할수 있다.

설비들마다에 자랑스럽게 세워져있는 설계 및 제작단위들의 명칭은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당의 최첨단물자공사를 구현해나가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로 력 절 약 형, 전 기 절 약 형 으 로 공 정 을 돌아보면서 강하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모든 생산공정을 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꾸러이는데 비해 로력과 전기를 30%이하 절약하면서도 생산능력은 두배로

차와 공정의 모든 천정기공기들에 대한 무선조종을 실현하여 지난해 시보다 로력이 훨씬 절약된다고 한다.

전해도공정, 전동기합성조공정, 전력공급계통을 자동화하여 열기 전 경제적실리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실례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찾아볼수 있다.

전기절약형의 유도로를 받아들이고 도장공정을 먼적외선가열장치를 새로 받아들여 전반적인 전력소비를 대폭 낮추었다.

무선통신에 의한 생산지휘체계를 받아들여 지휘의 신속성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그날의 영광을 높은 실천적성으로

정말 꿈만 같다. 공장을 찾아주신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만든 설비들로 현대화한것이 마음에 든다고, 공장안팎이 천지개벽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세계를 앞서나갔다는 야심을 안고 당이 제시한 새로운 투쟁목표를 정명할때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안겨주셨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 리 는 인 민 을 존 중 하 고 인 민 들 의 운 명 을 지 켜 주 며 인 민 들 의 리 욱 과 편 의 를 최 우 선, 절 대 시 하 는 것 을 철 칙 으 로 삼 아 야 합 니 다. 》

우리 공장은 수도시민들이 공해가 없는 도시에서 문명하게 살도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일며있다. 공장이 걸어온 수십년간의 발전과정에는 수도의 무궤도전차화방침을 제시하시고 걸음걸을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평도와 인민사랑의 력사가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힘에 의하여 찾아오시어 새형의 무궤도전차들을 타고 출퇴근길에 오른 수도시민들의 밝은 모습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었겠는가 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품절에도 최고실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정해주시신 2단계 현대화목표를 거어이 겸렵하고 세계적수준의 무궤도전차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겠다.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현대화, 자동화, 호프신화를 더욱 완벽하게 실현해나갔다.

그러하여 우리가 만든 세계적수준의 무궤도전차들이 자력자강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수도의 거리를 누비도록 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바쁘신 시간을 내시어 늦은 밤 수도시민들이 리용하게 될 무궤도전차의 성능이며 의장물에 이르러까지 친어머의 심정으로 헤아려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러르며 우리는 뜨거운 직정으로 눈시울을 적시었다.

세상에 이런 인민의 평도자가 또 어디에 있었는가.

우 리 들 은 경 애 하 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정해주시신 2단계 현대화목표를 거어이 겸렵하고 세계적수준의 무궤도전차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겠다.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현대화, 자동화, 호프신화를 더욱 완벽하게 실현해나갔다.

《자력갱생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이며 최첨단물자의 정신입니다.》

《우 리 힘 이 현대적으로 전환된 공정의 생산공정들마다에는 공물점이 있다. 대부분의 설비들이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창조물들이라것이다. 물건기재와 전동기생산에 필요한 38종에 800여대의 설비들모두가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치켜든 이곳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헤엄 단위와 힘

당의 현명한 평도의 손길아래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의 안팎이 산업시설이 나뉘며 이루어진 전민적인 생산공정의 현대화, 자동화, 호프신화가 실현되어 나라는 려계운수발전을 힘있게 추동할 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되었다.

《재 기 이 다 을 합쳐 우리 식으로 제작한것이다. 특히 무궤도전차의 견인 및 속도시험대를 검사하는 견인-속도시험대, 전공가압합성설비, 차체열박성형기, 차를구멍가공공정심판을 비롯한 7종의 설비들은 기술특성성이 우월하여 내놓고 자랑할만한 설비들이다. 이렇게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무궤도전차를 마음먹은대로 생산할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흥겹게 하는것은 여러대의 오랜 설비들도 CNC화하여 가공능력과 정밀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려주었다는 사실이다.

조종특성이 좋은 전동기를 새롭게 설계제작하여 무궤도전차의 견

인력을 1.2배로 높이고 자동차 단위를 비롯한 각종 부속품들을 자체로 만들어 생산에 도입한것도 주목되는 성과라고 말할수 있다.

설비들마다에 자랑스럽게 세워져있는 설계 및 제작단위들의 명칭은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당의 최첨단물자공사를 구현해나가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로 력 절 약 형, 전 기 절 약 형 으 로 공 정 을 돌아보면서 강하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모든 생산공정을 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꾸러이는데 비해 로력과 전기를 30%이하 절약하면서도 생산능력은 두배로

차와 공정의 모든 천정기공기들에 대한 무선조종을 실현하여 지난해 시보다 로력이 훨씬 절약된다고 한다.

전해도공정, 전동기합성조공정, 전력공급계통을 자동화하여 열기 전 경제적실리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실례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찾아볼수 있다.

전기절약형의 유도로를 받아들이고 도장공정을 먼적외선가열장치를 새로 받아들여 전반적인 전력소비를 대폭 낮추었다.

무선통신에 의한 생산지휘체계를 받아들여 지휘의 신속성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로씨야과학원 원동분원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 곳 참관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력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만경대옛집방문은 대대로 조선 혁명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애국자들이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대표단은 주체사상관, 과학기술전당,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등을 참관하였다.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력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만경대옛집방문은 대대로 조선 혁명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애국자들이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대표단은 주체사상관, 과학기술전당,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등을 참관하였다.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력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만경대옛집방문은 대대로 조선 혁명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애국자들이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대표단은 주체사상관, 과학기술전당,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등을 참관하였다.

다시 대지를 밝은 처녀

의 병원은 림상경험에 있어서나 의료설비와 의료인력의 수준 등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병원이었다.

처녀가 문수기능회복원을 찾아온 2015년 9월 당시 재학병무에게는 림상년한은 물론 경험이 부족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누구의 도움을 바랄수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 풀림, 정수압, 온도, 열전도성을 비롯한 물의 물리정질물리용하는 물치료를 전문으로 시작한다는 주체102(2013)년 12월에 문수기능회복원이 개원한 그때부터였다.

그러다보니 관절염, 경추증, 척추변형, 추간판탈출증 등에 대한 물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늘었다. 그것은 해아 충분한 효과를 보였는데에 대한 사랑이었다. 더구나 물치료를 비롯한 최신물리치료도 있었다.

상급학교를 졸업하고 문수기능회복원에 배치된 1년밖에 안된 재학병무의 위구심은 그로 해서 더욱 컸다.

《세 힘을 믿는만큼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른 파에서도 처녀의 건강회복을 위해 애쓰고있으니 우리의 의료진단의 힘을 믿고 힘껏 노력합시다.

어느날 진행된 의사협의회의

마감에 진행된 어조로 이르는 일꾼의 맑은 재학병무의 심금을 울렸다.

그 시기로 말하면 다른 파에서도 허탈한 전문분야에 대한 림상경험이 적어 많았기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하지만 회복원의 의료진단이 한 처녀의 운명이 걱정되어 함께 잠 못 이루고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이룰수 없는 충격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시작된 물치료의 달과 남은 눈물없이 볼수 없는 달과 날의 편속으로 이어졌다.

흔히 다른 나라들에서는 물치료라고 하면 환자만이 물속에 들어가 기능회복치료를 받는것이 예상사로 되고있다. 그것은 의료인들에게 있어서 물속에서의 치료가 그만큼 힘들기때문이다.

하지만 당의 품속에서 인간의 귀중함을 배우기 위한 재학병무는 매일 두시간씩 환자와 같이 물속에 들어가 회복치료를 진행하였다.

그렇게 오랜 나날이 흐르며 차츰 개선되는듯했던 환자의 병상태가 예상인지 더는 회복되지 않아 안락하게 모래진저기에 그에게는 그대머리진저기였다.

그런 때면 과학부원장 김원주, 물치료과 과장 김명근, 의사 허

마감에 진행된 어조로 이르는 일꾼의 맑은 재학병무의 심금을 울렸다.

그 시기로 말하면 다른 파에서도 허탈한 전문분야에 대한 림상경험이 적어 많았기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하지만 회복원의 의료진단이 한 처녀의 운명이 걱정되어 함께 잠 못 이루고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이룰수 없는 충격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시작된 물치료의 달과 남은 눈물없이 볼수 없는 달과 날의 편속으로 이어졌다.

흔히 다른 나라들에서는 물치료라고 하면 환자만이 물속에 들어가 기능회복치료를 받는것이 예상사로 되고있다. 그것은 의료인들에게 있어서 물속에서의 치료가 그만큼 힘들기때문이다.

하지만 당의 품속에서 인간의 귀중함을 배우기 위한 재학병무는 매일 두시간씩 환자와 같이 물속에 들어가 회복치료를 진행하였다.

그렇게 오랜 나날이 흐르며 차츰 개선되는듯했던 환자의 병상태가 예상인지 더는 회복되지 않아 안락하게 모래진저기에 그에게는 그대머리진저기였다.

그런 때면 과학부원장 김원주, 물치료과 과장 김명근, 의사 허

어쩌면 우리 원수님께서 나의 이름까지 깊이 헤아려 현대적인 문수기능회복원을 일떠세워주신것만 같다고.

이러시부터 계속 못지 않게 음악에도 소질이 있었다는 처녀가 20여년전일 때만 노래는 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노래를 요청하면 《아버지장군님 고맙습니다》를 불러주었고, 지난 수년세월 그렇게 불러 이제는 수백편도 더 불렀다. 하지만 처녀는 한생 그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겠다고 우리에게 말하였다.

문수기능회복원에서 힘있게 울려 퍼지는 로동당안세소리.

무심히 들을수 없다. 만일 이곳 의료인들이나 물속에서의 치료방법을 우리 식으로 확립했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앞섰다고 하는 나라에서 기존공식처럼 내수들던 3년동안의 치료기간을 2년 남짓하게 줄인 문수기능회복원의 의료진단의 소울은 오늘 우리 시대 의료인들의 자애와 림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감동깊이 말해주고 있다.

로력과 전기를 절약할수 있는 생산공정 확립

신양고려광장에서 절약형 생산공정을 확립하여 원가절감 실현을 꾀하고있다.

설비와 생산공정을 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할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공장일꾼들은 기술자, 기능공들로 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시켜나갔다.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불꽃처럼 휘둘러야 할 열의는 배양되어 이룩 로동자, 기술자들은 해당 단위 과학자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로력 및 전기

절약형생산공정확립의 첫 고리인 고려양생 및 경영업무정보화실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기위해 힘을 집중하였다.

이들은 공장의 실정에 맞게 정비화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생산공정들의 기술제적지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함으로써 많은 로력과 전기, 자제를 절약하면서 생산을 활성화할수 있는 설비들을 열여놓았다. 한편 공장에서는 순환식추출 및 전공농속공정을 현대화하기

절약형생산공정확립의 첫 고리인 고려양생 및 경영업무정보화실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기위해 힘을 집중하였다.

이들은 공장의 실정에 맞게 정비화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생산공정들의 기술제적지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함으로써 많은 로력과 전기, 자제를 절약하면서 생산을 활성화할수 있는 설비들을 열여놓았다. 한편 공장에서는 순환식추출 및 전공농속공정을 현대화하기

절약형생산공정확립의 첫 고리인 고려양생 및 경영업무정보화실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기위해 힘을 집중하였다.

이들은 공장의 실정에 맞게 정비화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생산공정들의 기술제적지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함으로써 많은 로력과 전기, 자제를 절약하면서 생산을 활성화할수 있는 설비들을 열여놓았다. 한편 공장에서는 순환식추출 및 전공농속공정을 현대화하기

절약형생산공정확립의 첫 고리인 고려양생 및 경영업무정보화실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기위해 힘을 집중하였다.

이들은 공장의 실정에 맞게 정비화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생산공정들의 기술제적지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함으로써 많은 로력과 전기, 자제를 절약하면서 생산을 활성화할수 있는 설비들을 열여놓았다. 한편 공장에서는 순환식추출 및 전공농속공정을 현대화하기

절약형생산공정확립의 첫 고리인 고려양생 및 경영업무정보화실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기위해 힘을 집중하였다.

이들은 공장의 실정에 맞게 정비화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생산공정들의 기술제적지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함으로써 많은 로력과 전기, 자제를 절약하면서 생산을 활성화할수 있는 설비들을 열여놓았다. 한편 공장에서는 순환식추출 및 전공농속공정을 현대화하기

절약형생산공정확립의 첫 고리인 고려양생 및 경영업무정보화실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기위해 힘을 집중하였다.

이들은 공장의 실정에 맞게 정비화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생산공정들의 기술제적지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함으로써 많은 로력과 전기, 자제를 절약하면서 생산을 활성화할수 있는 설비들을 열여놓았다. 한편 공장에서는 순환식추출 및 전공농속공정을 현대화하기

절약형생산공정확립의 첫 고리인 고려양생 및 경영업무정보화실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기위해 힘을 집중하였다.

이들은 공장의 실정에 맞게 정비화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생산공정들의 기술제적지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함으로써 많은 로력과 전기, 자제를 절약하면서 생산을 활성화할수 있는 설비들을 열여놓았다. 한편 공장에서는 순환식추출 및 전공농속공정을 현대화하기

제국주의자들의 분열과해전략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

남로 쇠퇴를 꾀하고있는 제국주의반동 세력은 어떻게 하나 자주력량의 강화를 가로막고 지배권을 유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군사적강권을 동원하는것과 함께 자주를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을 분열, 리간척을 위한 전략에 보다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현실은 자주화된 새 세계를 바라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그를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이애 불신과 알뜰을 조장, 격화시키고 적대감을 조성하여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으며 나라와 지역들의 분쟁문제에 끼여들어 그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고있습니다.》

진보적인 나라들에서 불화와 반목, 적대감을 조성하여 단결하지 못하게 하는 분열과해전략은 제국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상투적인 수법이다. 그들은 많은 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능히 구미에 맞는 세계질서를 세울수 있다고 보고 이 전략을 적용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들의 정치체제와 정책, 지도부에 대한 비난과 허위선전을 대대적으로 벌리는가 하면 비정부기구를 내세워 친이, 친서방세력들에게 돈을 대내면서 그들이 국가의 법과 질서를 어긋고 사회질란을 일으키게 하고있다. 《원조》와 《협조》, 《교류》 등을 통하여 저들에게 환상을 가지게 하는 등 온갖 비열한 수법들을 다 쓰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분열, 리간척들은 엄중한 후과들을 산생시키고있다. 여러 지

역들과 복잡한 사태들이 빚어지고있다. 국제적인 우위를 자아내고있는 나라들사이, 민족 및 종족들사이의 갈등과 분쟁문제들은 모두 제국주의자들의 분열, 리간척들의 산물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국주의력량인 빨떡불가담운동을 분열 와해시키기 위해 성원국들사이에서 배기를 하고있다. 인위적으로 반목과 대립을 고취하고 충돌과 분쟁을 야기시키고있다. 빨떡불가담운동을 내부로부터 분열 와해 시키려고 그 어느때보다 집요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빨떡불가담나를, 발전도상나라들을 각개격파하는 방법으로 반제국주의력량을 약화시키고 지배권을 유지강화하려 하고있다.

승냥이가 양로 변할수 없듯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들이 걸으려는 《평화》의 관을 내들고 《원조》에 대해 운운하고있지만 속에는 칼을 품고 발전도상나라들을 신적민주주의로 만들려고 획책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빨떡불가담 및 발전도상나라들의 호상관계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간섭과 침략의 구실을 삼고 있다. 이것 역시 제국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와해전략의 한 형태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빨떡불가담 및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를 군사적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일방을 교묘하게 부추기는가 하면 《중재자》의 말을 쓰고 끼여들어 서로 유신간섭하게 만들었다.

국제공방에 있는 유전의 영유권문제를 둘러싸고 쿠웨이트와 분쟁을 하던 이라크가 1990년에 끝내 그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한것도 중동지배를 노린 미국의 분열, 리간척들의 결과였다.

지금도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책동에 의하여 여러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권

남조선 단체들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규탄

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22일 서울에서 일본의 《다게시마의 날》철폐 및 남조선일본《어업협정》폐기를 요구하는 규탄집회들을 진행하였다. 독도사랑운동본부는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이 즉시 《거짓독도의 날》을 철폐할것을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아베정부가 역사적으로 다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아베정부가 군국주의부활에 대한 망상으로 그 야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1998년에 체결된 남조선일본《어업협정》을 비난하며 남조선당국이 독도에 대한 지배권을 위해서라도 이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독도사랑회와 환민단, 독도사랑국민운동본부도 일본대사관앞에서 《다게시마의 날》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그들은 독도를 탐내는 일본의 침략야욕을 규탄한다고 하면서 저울질을 펴며 기간

동북아시아평화에 재를 뿌리는 일본은 《다게시마의 날》행사를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정부가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어린 학생들에게도 독도의 교육의 의무적으로 하려는 터무니없는 도발을 감행하고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일본이 아무리 거짓력사를 가르친다 해도 역사의 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것이며 오히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각국으로부터 비난과 거센 저항에 부딪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흥악한 속심을 드러낸 미국의 경제적압박책동

최근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압박책동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미국당국자들은 자동차대기업체인 제네랄 모터스회사를 내세워 남조선지사인 《한국GM》의 군사공장을 폐쇄하도록 하고 미국에 반납되는 남조선산 상품들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적용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뿐만아니라 《이주 나쁜 거래》, 《그 협정은 재앙》, 《예협상을 하고있지만 성과가 없으면 폐기할것》이라고 떠들며 미국남조선《자유무역협정》을 저들의 입맛에 맞게 뜯고칠것을 남조선당국에 강박하고있다.

미국의 이 파멸적인 남조선적행위는 남조선당국을 북남관계개선에 나서지 못하게 압박하며

로 간주되고있는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압박이었다.

이것으로 미국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저들의 탐욕적의욕을 위해서라면 이른바 《동맹》도 서슴없이 저버리는 저들의 흥악한 속심을 또다시 드러내놓았다.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압박을 통해 북남관계개선을 차단하고 남조선인민들의 피땀을 주입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크리작전》폭언을 해치며 핵강공모함 《갈빈호》와 《B-2》, 《B-52》, 《F-35》를 비롯한 핵력수단들, 첨단살인장비들을 조선반도주변에 대대적으로 들이밀며 정세를 격화시켰다.

미국이 저들의 흥성이 통하지 않게 되자 고안해낸것이 지배적력전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담화

지난 2월 23일 트럼프는 우리의 그 무슨 제재회피시도와 공해상에서의 석탄, 연료수송을 돕는 불법수단들을 차단한다는 미명하에 우리와 제3국의 해운 및 무역회사 27개, 선박 28척, 개인 1명을 포함하여 도합 56개의 대상들에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하면서 이것을 《사상 최대》의 대조선제재라고 회포를 나타내며 자랑하였다.

트럼프의 반공화국제재압박사동은 그 악랄성과 반동성에 있어서 역대 《최고》수준이라고 볼수 있다.

그것은 제재회수와 제재대상의 수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초보적으로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대조선제재는 집권후 현재까지 제재회수와 국부성을 내세워 12차례 걸쳐 우리 일군 65명과 기관 및 단체 56개, 선박 45척, 우리와 제3국 제3국의 기업 32개, 개인 12명, 선박 9척 등 총 219개 대상들에 제재를 가하였다.

력대 행정부들과 대비해보면 오바마행정부가 집권 8년간 28차례 걸쳐 217개 대상들에, 부시행정부가 집권 8년간 2차례 걸쳐 11개 대상들에 제재를 가하였다.

대조선제재내용에 환강한 나머지 최근 미제부장관이라는 자는 2005년이래 제재의 평양에 대한 450여개의 제재조치를 집행이 지난해에 실시되었다고 자랑삼아 떠벌이었다.

트럼프가 벌여놓고있는 제재책동의 악랄성은 그 범위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하고있는데

남조선단체들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국민추진연대 광주지회본부가 2월 26일 금산미군기지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북침전쟁연습을 재개하려는 미국을 규탄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미국이 남조선에 경제적, 외교적압박을 가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남북관계개선을 파탄시키고 남조선에 경제적, 외교적압박을 가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이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를 두려워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지금까지야말로 미국에 대한 사대의존을 광장하고 있는 겨레의 단결한 힘으로 자주적으로 나갈 때만이 미국에 대한 단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남북사이의 화해협력과 민족대단결을 방해하는 미국의 도발책동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겨울철을림경기대회 개막식

남조선단체들 반미투쟁의지를 다짐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민항협실수후회회, 4월혁명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2월 27일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미국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의지를 다짐하였다.

발언자들은 미국이 이번 겨울철을림경기대회를 진주하여 조선반도주변에 핵강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들을 증강배치하고 북에 대한 사상 최대의 《독자제재》를 단행하는가 하면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압박책동으로 남북대화과 관계개선에 제동을 걸고있다고 까뻐하였다.

그들은 겨울철장에 자를림경기대회를 앞두고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재개된다면 조선

남조선 단체들 미국의 경제적압박책동을 규탄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국민추진연대 광주지회본부가 2월 26일 금산미군기지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북침전쟁연습을 재개하려는 미국을 규탄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미국이 남조선에 경제적, 외교적압박을 가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남북관계개선을 파탄시키고 남조선에 경제적, 외교적압박을 가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이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를 두려워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지금까지야말로 미국에 대한 사대의존을 광장하고 있는 겨레의 단결한 힘으로 자주적으로 나갈 때만이 미국에 대한 단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남북사이의 화해협력과 민족대단결을 방해하는 미국의 도발책동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겨울철을림경기대회 개막식

남조선단체들 반미투쟁의지를 다짐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민항협실수후회회, 4월혁명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2월 27일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미국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의지를 다짐하였다.

발언자들은 미국이 이번 겨울철을림경기대회를 진주하여 조선반도주변에 핵강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들을 증강배치하고 북에 대한 사상 최대의 《독자제재》를 단행하는가 하면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압박책동으로 남북대화과 관계개선에 제동을 걸고있다고 까뻐하였다.

그들은 겨울철장에 자를림경기대회를 앞두고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재개된다면 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공보실장 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공보실장은 최근 우리 나라와 수리아사이의 《화해와정착협조》이 이루어지고있다고 발표하여 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미국이 또다시 터무니없는 모략사료를 꾸며내어 반공화국악선전에 기승을 부리고있다.

최근 수리아동부지역에서의 민간인들에 대한 《화학무기사용설》이 나돌고있는 때에 미국은 저들의 이용수단들을 내세워 유엔안보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에 조사보고서를 변경된 내용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수리아의 화학무기제조를 협조》하였다는 억지주장을 내뿜려고

미국 내정간섭책동 비난

미국이 이번 사건이 팔레스티나에 대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의 연장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당국이 그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이번 사건이 팔레스티나에 대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의 연장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당국이 그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이번 사건이 팔레스티나에 대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의 연장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당국이 그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이번 사건이 팔레스티나에 대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의 연장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당국이 그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재침광증이 빚어내는 필연적결

영미권 일본 사기꾼의 어느 한 시에서 전쟁연습에 돌아다니는 《자위대》소속 《AH-64D》직승기가 살릴때에 곤두박쳐 기어가고있던 승조원이 죽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런 사고로 일본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직승기가 추진지역에 떨어지거나 살릴때에 한층 더 위험이 커진다. 처녀에게 부상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시기에 일본《자위대》의 직승기추락사고는 빈번히 일어났다.

지난해 8월 일본의 쓰가루해협에서 비행훈련을 하던 해상 《자위대》소속 《SH-60》직승기가 추락하였다. 10월에 한 항공《자위대》소속 《UH-60》직승기가 하마마시 앞바다상공을 돌리다가 바다에 처박혔다. 결과 직승기조종사를 비롯한 《자위대》원들이 행방불명되었다.

일본의 재침광증이 빚어낸 필연적결이다.

지금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직승기들의 연이은 사고로 민간인에게 살아가고있는 현주된 들 속에서 비행을 중지할때 대한